

“Ready For Love”, 공익과 인권은 모든 법의 근간이라는 마음으로 ...

이 강 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이하‘공익인권법학회’)는 우리 사회의 공익과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뭉친 예비법조인들의 모임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로스쿨 생활의 빠박한 일정 속에서 경쟁이라는 요소를 잠시 잊고,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초심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는 법학의 세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에 가지게 된 공익, 인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함께 하고, 그것을 “법”이라는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틀로 구체화·체계화하여 실질적인 결실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세미나를 통해 공익과 인권에 관한 이슈와 이에 관한 현행법 및 판례의 태도와 문제점 등에 대한 발제자의 발제를 듣고, 이에 대해 회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인권 분야 법조인 초청 특별강연, 인권영화 상영, 전국 로스쿨인권법학회 연합 캠프 참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소양과 사회적 책무, 인격의 함양을 꾀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학우들 간의 공익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익인권법학회는 2009년 8월에 공익과 인권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진 선배님들이 주축이 되어 탄생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1회 정기적인 세미나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장

개최하는 것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 단체와 연대 활동, 대구·경북 인권 조례안 제작 참여, 언론정보학과 I-LINK 및 정치외교학과 I.C STUDY 와의 연합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도에는 실명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정종원 변호사님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인 ‘빵과 장미’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고, 故조영래 변호사 관련 영상 관람 및 토론, 동성애자의 결혼 합법화에 대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도 정기적인 세미나 이외에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판결의 주역인 최봉태 변호사님을 초청하여 특강을 가졌고, 대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최하는 설명회 참가를 통해 공익과 인권에 대한 법적 소양을 쌓고 친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학회에서는 바쁜 로스쿨 생활 속에서도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공익과 인권에 대한 관심과 법적 소양을 쌓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주 진행되는 정기적인 세미나 이외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의 특강과 멘토링을 추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장님을 초청하여 특강을 가질 예정 입니다. 또한 공익·인권 관련 단체와의 연계 활동 및 전국 로스쿨인권법학회 연합 캠프 참가 등의 활동도 함께 할 계획 입니다.

2013년 현재 저희 학회는 총 1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배들이 닦아 놓은 이 공간을 통해 지금까지 이 자리를 채우는 이들과 만나 함께 한 매 순간이 무척이나 소중했습니다. 공익과 인권은 모든 법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회를 통해 때로는 우리들 자신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우리 사회에 대한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똑똑똑 !! 들어오세요. 즐거운 초대로.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신나게 바쁜 로스쿨 생활 속에서도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꿈과 열정, 소명의식을 키워 나가 보고픈 분들을 환영 합니다. 서로의 다양한 사고와 교감이 자라나, 서로의 관심사와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서 삶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더욱 키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